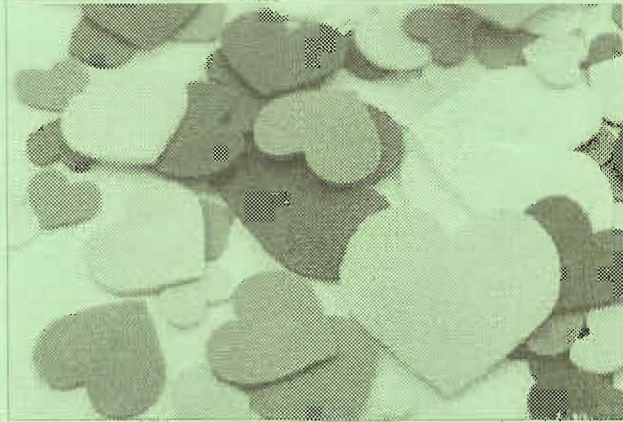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위령의 달 · 연중 제31주일
제32권 49호(나해) 2012-11-4

[묵상]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함이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함이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가르치신다.

율법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정신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에 있지 않고
사랑함에 있음을 깨달은 율법학자를
예수님께서서 슬기롭다고 칭찬하신다.
예수님께서서 하느님 나라에 오르신 것은
십자가상의 희생제물 봉헌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이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였고
하느님의 연인이었던 인간을 사랑했기에,
내게 남은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기에
나도 예수님의 칭찬 한번 듣고 싶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내 생애 마지막 순간의 칭찬이었으면 더 좋겠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 樞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전시웅 요한, 이덕철 루카, 권오봉 (생)이정숙 루시아
주 일 낮 미사	(연)주용범 아브라함, 강래봉, 이경웅 야고보, 유점이 베로니카, 고준희 제임스, 김풍길 바오로, 박영춘 안토니오, 정선걸 모니카, 박순용 요안나, 민소예 모니카, 서명관 안토니오 (생)이윤조 글라라, 김성일 다미아노, 김수환 에머슨, 이종민 요셉, 이재환 프란치스코 & 김린다 안나 가정, 김종렬 베드로, 안재성 가브리엘 & 예림 사비나, 안재만 다니엘 & 해란 데레사, 이경수 헬레나 가정, 변혜수 루피나, 잔 로, 신혜정 로사 & 유석영 레오, 이근모 마리오, 이종원 베드로 & 린다 아네스 가정,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6,2-6

화답송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신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7,23-2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마르코(Mark) 12,28ㄱ-34

영성제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49	249	249
봉헌	265	265	265
성체	287	287	279
파견	321	321	23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하느님 말씀과 시간 전례

특히 이 기도의 깊은 신학적, 교회적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상, “교회는 성무일도를 바칠 때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하느님께 ‘끊임없이’(1테살 5,17) 찬미의
제사를 바칩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항상 바칩니다.(히브 13,15 참조).

이 기도는 ‘참으로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의 목소리이며,
또한 자기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
도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이를 바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드높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어머니인 교회의 이
름으로 하느님의 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공적
기도인 시간 전례에서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과 시편을 기
도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활동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연
결되고, 이로써 하루 전체의 성화라는 그리스도교적 이상이
표현됩니다.

자신의 생활 신분에 따라 시간 전례를 바쳐야 하는 이들은, 교
회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이 임무를 충실하게 살 것입니다. 교
회로부터 시간 전례를 거행할 명을 받은 주교들, 사제들과 사
제직을 지망하는 부제들은, 매일 시간 전례를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법을 따르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서 이 전례에 대한 의
무는 고유법에 지시된 바를 따를 것입니다. 또한, 봉헌 생활 공
동체들이 시간 전례를 거행하는 데에서 본보기가 되어 교회
전체의 영성 생활과 사목 생활을 위하여 기준점이 되고 영감
을 줄 수 있게 되도록 격려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이 기도가, 특히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파는 당연히, 신자들이 하느
님의 말씀과 더욱 친밀해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일과 대축
일 제1 저녁 기도를 위하여 특히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서 시
간 전례의 가치를 강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대로
본당과 수도 공동체들에서 이 기도회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권고합니다.

하느님 말씀과 축복 예식서

63). 축복 예식서를 사용하는 데서도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경
청, 그리고 짧은 설명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입니다. <◆계속>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마르 12,29-30)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순서상 첫째와 둘째일 뿐 사실 ‘하나’의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느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대상이 인간이라면 눈에 보이고 쉽게 만질 수 있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사랑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을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둘째 계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기준은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그렇다면 이웃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은 곧 또 다른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서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12)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나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 마음과 의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이에게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또 다른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직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신앙은 오로지 믿으면서 자라고 더욱 강해집니다.

하느님에게서 생겨난 것이기에
끊임없이 날로 자라는 사랑의 손길에
더욱더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송현식 바오로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정광미 프란치스카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래 테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11월
위령성월

◆ 남가주 한인가톨릭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1월10일(토)
연도 오후 1시15분, 미사 오후 2시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 본당출발 : 카폴, 닛 12시40분 성당 주차장

◆ 남가주 한인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 응원

11월3일(토) 오후 6시부터 이웃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남가주한인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본당 배론청년회에서 선수들이 참가하여 한껏 실력을 겨룹니다. 기도중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본당 레지오 단장회의

- 일시 : 오늘 주일(4일) 오후 1시, 장소 : 1층 회의실
- 안건 : 연차총친목회
(단장 불참시엔 부단장이 참석해주세요.)
- 문의 : 꾸리아단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제3회 본당 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

- 일시 : 11월11일(주일) 오후 1시30분, 농구장
- 대상 : 남- 양업회, 대건회, 배론청년회, 주일학교
여- 성모회, 자모회, 배론청년회, 주일학교
- 경기방식 : 단체별 남녀 각각 한팀 5명씩 총8팀 구성후 남성, 여성경기로 리그전 진행
- 경기후 맛있는 BBQ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요셉회 11월모임 11일(둘째주일)로 임시변경합니다.

- 시간 : 11일(주일) 낮미사후
- 장소 : 유아실
- 문의 : 김대우 비오 요셉회장 ☎(310)920-7647

◆ 성모회 기금모금 판매

- 일시 : 11일(주일), 친교장
- 품목 : 된장, 고추장, 새우젓, 다시마 등

♡마르띠노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1월11일(주일)은 투르의 성 마르띠노 주교기념일로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축하 모임은 11일(주일) 낮미사 후 친교장에서 있으며, 신부님께서 작년처럼 전신자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시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 나누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당 신부님배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 빈병 수거합니다.

* 문의 : 최길숙 요세피나 성모회장 ☎(310)738-4788

◆ 2012년도 마지막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24일(토) 오후 6시(10분전까지 모이세요.)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세례 신청서 : 11월18일(주일)까지 제출(서류 사무실비치)
- 12월 세례일정을 11월로 임시 변경했사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성전 안에 음식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사 또는 특강,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먹던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여갈 수 없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교리 및 신자재교육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주제 : 창조주 하느님)
- 장소 : 성전(신자재교육 차원에서 마련되는 교리시간에 일반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상분 콜링(전화)카드 판매

- 상분(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4일(주일) : 소공동체(김밥/떡 \$4)
주일학교(6학년 김치볶음밥)
- 11월11일(주일)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친교자리
토런스 서2반:미역국/성모회:떡,과일,수육- 전신자나누기
주일학교(5학년 떡볶이)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미순	강인모	강지혜	강태홍	김주량	성전헌금	강미순	강인모	강태홍	김주량	김준호	김찬구
	김준호	김찬구	김충섭	박음전	박종열	양영관		김충섭	양영관	윤화경	이경태	이병우	이석제
	윤철	윤화경	이경태	이미경	이병우	이석제		이석진	임한나	조인순	최태훈	한창주	홍석인
	이석진	이재승	임연조	임한나	장영진	정병훈		황지영	이크리스				
	조인순	최태훈	한창주	홍석인	황지영								
	이크리스				합계 : \$3,530							합계 : \$1,600	
미사헌금 : \$2,759							감사헌금 : 익명(\$1,00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전진반 미션 트립

- 일시 : 오늘 주일(4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 장소 :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
26801 Ortega Hwy. San Juan Capistrano, CA 92675
- 대상 : 고등부 10학년
- 문의 : 빈센트 신 건진교리 담당교사 ☎(213)500-9448

◆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 모집

- 성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 대상 :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교우
 - 문의 : 지휘자 민원희 안나 ☎(310)634-9631

남가주 소식

◆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기도과정 프로그램

- 매일 30분씩 14주 기도과정, 매일 1시간씩 9개월 기도과정
- 마감 : 11월30일(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CLC)
- 문의 : 정도로테아 ☎(818)764-8950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Season 3'

- 미혼 가톨릭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 일시 : 11월10일(토) 오후 5시~10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 대상 : 남자(82년~73년생), 여자(84년~73년생)
 - 문의 : 전양주 데레사 ☎(562)822-6448

◆ 제31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 시편 116:12 -

- 일시 :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연합미사
- 2부행사 :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우리성당 스타일'
- 강남스타일 패러디 혹은 각본당만의 독특한 스타일 표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롱비치)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성 라파엘 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까지는 공원주차 무료 및 모자도 무료증정합니다.

◆ 2013년 LA마라톤 앞두고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SBRT : 사우스베이 러닝 팀) 회원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지금부터 연습, 훈련하면 됩니다.)
- 장소 : 사우스 하이스쿨
- 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 걷거나 뛰는 사람
- 연락처 : 회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코치 최현찬 안드레아 ☎(310)257-1996

노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1/9/(금) 오후 7시 복혜루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막달레나, 욕울리아 639-3377 11/10(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신순철 가브리엘 494-1391 11/13(화) 오후 7시30분 반미사
토런스 서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충섭 마틴 533-1435 11/10(토) 오후 7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인두 토마스 424-241-5988 11/17(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박명순 안나 968-7600 11/9(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1	오창애 안나 974-2857	남구역 합동 반모임 11/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합동 반모임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1/10(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김윤진 카타리나 997-5455 11/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1	남경희 테네디카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 11/16(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678-8222 11/20(화) 오후 7시 반미사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병록 요셉 938-6807 11/6(화) 오후 7시 반미사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1/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	--

식사 후 기도, 잘 바치고 계십니까?

식사 전과 후에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이 내려 주신 양식에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감사와 은총을 뜻하는 라틴어 그라띠아(gratia)에서 유래됩니다.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하나님께 준비된 음식과 음식을 나눌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청하는 동시에 주신 선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물과 음식에서 조차 주님께 완전히 의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성호를 그으며 식사기도를 정성껏 바쳐야 합니다.

이 단순한 몸짓은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기도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개종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조용한 몸짓이 거리의 모퉁이에서 외쳐대는 몇천 마디말보다 더 크고 웅변적이며 강력한 은총의 전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위령기도(慰靈祈禱: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연도’라고도 한다)는? 정답은 식사 후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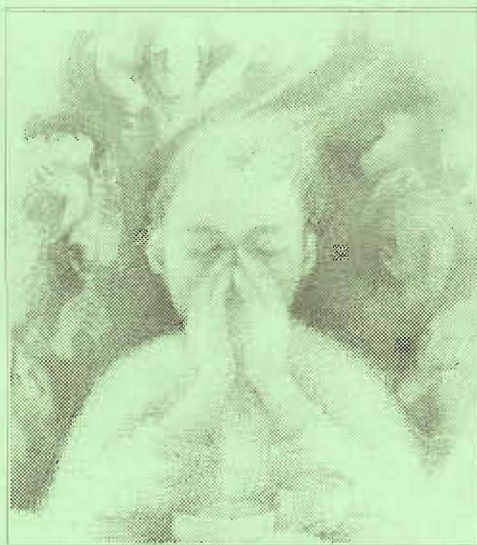
식사 후 기도, 잘 바치고 계십니까?

일상적으로 식사 전 기도는 잘 바치지만, 식사 후 기도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시작할 때 연옥 영혼이 우리의 밥상위에 와 앉는단다. 그러다가 식사를 다하고 나서 우리가 식사 후 기도를 하지 않고 일어선다면 그 영혼이 울면서 떠난단다.’

우리는 매일 그것도 하루 세 번씩이나 밥상 앞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은 형제애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만 그치지 않고 산 이와 죽은 이 사이에도 통공(通功, 라틴어 Communion)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의 교리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집회 7,33)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서울대교구 독산1동성당 주임

☞ 제 친구가 성당에서 같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더는 신자생활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친구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당이지만, 본당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단체와 단체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야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복음적이지 않기에 실망하게 되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받았기에, 그들을 단죄하고 떠나려고만 하는 모습 역시 복음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이 아쉽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내 모습에 ‘사랑’이 있는지, 그들에게 용서의 마음이 없는 것이 실망스럽다면 바로 그들을 향한 내 마음에는 ‘용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야만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부족하기에 서로 돌보아주려 할 때, 바로 그곳이 완벽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 신부